

‘뽕에서 놀자’… 보성갯벌서 생태문화 축제 한마당

20일 벌교읍 장양어촌체험마을…생태보호 퍼포먼스
레저뽕배대회·생태견기대회 등 체험 프로그램 ‘풍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보성갯벌에서 생태문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14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20일 벌교읍 장양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2025 보성벌교 갯벌축제’를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보성벌교갯벌과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보성뽕배어업을 알리는 가족 친화형 생태문화 축제로, ‘뽕에서 놀자!’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린다. 개막식에서는

벌교갯벌의 생태적 상징성을 담은 ‘갯대중 알락꼬리마도요’ 선포식이 열리며, 생태보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축제의 백미는 제10회 레저뽕배대회다. 뽕배는 갯벌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전통 어업 도구로, 참가자들은 직접 뽕배를 타고 갯벌을 누비며 아이들에게는 모험심을, 어른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오후 처음 도입되는 ‘벌교갯벌길 생태견기대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양어

촌체험마을 주무대에서 출발해 벌교생태공원까지 왕복 7.4km 코스로 진행된다. 참가코스는 짙둥어코스(3.6km)와 마도요코스(7.4km)로 나뉘며, 보성군이 추진 중인 ‘벌교~장도간 생태탐방로드 조성사업(494억원)’과 ‘보성 벌교갯벌 생태계 복원사업(70억원)’과 연계돼 철새와 다양한 갯벌 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벌교갯벌 레저뽕배대회’와 ‘벌교갯벌길 생태견기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보성군청 누리집 네이버폼을 통해 가능하며, 대회 당일인 20일 오전 10시30분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벌교갯벌 홍보 전시관과 바닷새 사진전 등 교육적 볼거리와 갯벌 풋살대회, 물고기 맨손잡기, 뽕배 체험존, 숯불구이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



지난해 열린 보성벌교 갯벌축제에서 뽕배대회 참가자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하루 종일 갯벌에서 뛰고 구르며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은 도시에서는 쉽게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 될 전망이다.

김길두 추진위원장은 “2025 보성벌교 갯벌축제는 갯벌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자리이자, 지역의 생명력과 생태적 즐거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

간”이라며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마음껏 뛰놀고 배우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여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전남 1위
이벤트 행사 102.75%…1만4709명 문화복지 확대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남문화재단이 함께 추진한 ‘2025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향상 이벤트’에서 전남 내 발급률 1위를 차지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4만원 상당을 지원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체육·관광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임시 가맹점을 확대 운영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7월 8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54일간 진행됐으며, 전

남 내 지자체의 발급률 향상 및 실적을 평가해 순위를 선정했다.

시는 이 기간 적극적인 홍보와 발급 지원에 힘쓴 결과 발급률 102.75%를 기록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전남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1만4709명의 대상자가 통합문화이용권을 통해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누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과 이용률 제고에도 힘을 기울일”이라며 “적극적인 가맹점 발굴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과 생활 속 문화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마을과 함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해요” (재)담양군문화재단이 주관한 202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의 일환인 ‘나를 찾는 인생 여정’이 최근 창평면 창흥학당에서 마지막 아카이빙 전시를 끝으로 아이들이 지역과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며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창평면의 초등 청소년 15명이 참여해 마을을 직접 탐방하고, 자료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탐색했다. 사진제공=담양군

광양지역 올 상반기 투자유치 실적 ‘급감’

4개 기업 3812억 그쳐…전년보다 70.5% 줄어

올해 들어 광양지역의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역에 유치된 기업은 4곳, 투자금액은 총 3812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개 기업, 1조 2936억원)과 비교하면 70.5%(9124억 원)나 감소한 수치다.

투자유치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하락세다. 2022년에는 21개 기업 2조 3377억원, 2023년 22개 기업 2조 7953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 14개 기업

2조 3635억원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급전직하한 모습이다. 시는 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환율·금리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확대, 정치적 혼란, 내수 부진 등을 꼽았다.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위협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시는 하반기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

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지정된 제철소 동해 환금산단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른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특별자금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해중 시 투자경제과장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렵지만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최첨단산업 위주로 투자유치를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
나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나주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형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열린 제1회 나주시 사회복지박람회와 연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에 상하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장애와 비장애의 화합을 상징하는 ‘사랑의 비즈고리 만들기’,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다육이 화분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또 나주형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과 시민 의견 공유 시간을 마련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감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캠페인 시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소통과 나눔의 장이 됐길 바란다”며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